

주요 내용

1. [한국인의 외로움과 종교]

종교활동 시간 많을수록 외로움 극복 비율 높아!

2.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세대별 동성애 인식

2) 한·일 국민 '100세 시대'에 대한 인식



종교활동 시간 많을수록 외로움 극복 비율 높아!

사회의 발전이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 외로움도 점점 커지고 있다. 1인 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와 고령인구의 증가, 코로나19 등의 감염병의 장기화는 우리 사회의 사회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켰다. 외로움과 유사어인 '고독'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같은 건강상 해악을 미친다고 한다.

이번 넘버즈에는 국민일보와 조사 전문기관 피엠아이가 공동으로 최근 실시한 '한국인의 외로움 조사' 결과를 주로 다뤘는데 해당 조사는 외로움과 종교의 상관관계를 찾기 위해 기획된 점이 특징적이다. 종교인이 무종교인보다는 외로움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고, 종교활동 시간이 많을수록 '종교가 외로움 극복에 도움을 준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응답한 점이 주목된다.

외로움을 다룬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외로움을 맞서는 측면에서 종교의 효용성이 꽤 큰 것으로 보인다. 외로움과 종교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 셈이다. <넘버즈 195호>는 종교, 특히 개신교가 외로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과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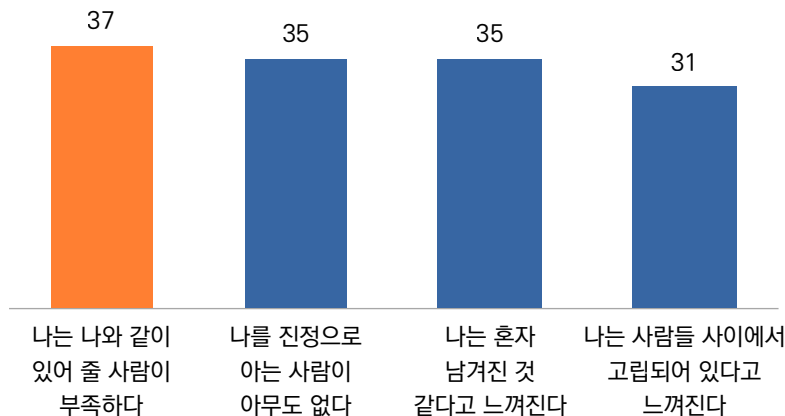


01

[한국인의 외로움 실태] 한국인, 30% 이상 고립감 속에 있다!

- ▶ 한국인이 느끼는 고립감은 어느 정도일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고립감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을 통해 살펴본 결과, ‘나와 같이 있어 줄 사람이 부족하다’, ‘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는 혼자 남겨진 것 같다고 느껴진다’ 등에 대해 30% 이상의 동의율을 보였다. 한국인 3명 중 1명 이상이 고립감 속에 있는 것이다.

[그림] 외로움 관련 인식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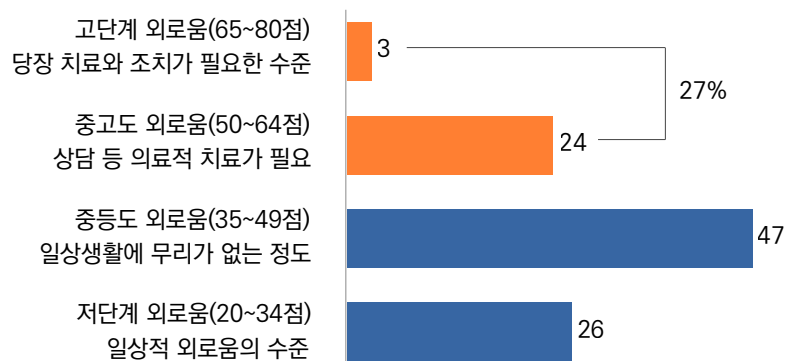


*자료 출처 : 국민일보/피एम아이. '외로움 척도 지수와 종교 상관관계', 2023.02.01. (전국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2,000명, 온라인/모바일 조사, 2023.01.19.~26.)
**4점 척도임.

◎ 한국 성인 4명 중 1명 이상, 외로움에 대한 의료적 치료 필요한 수준!

- ▶ 다음으로 우리 국민의 외로움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상담 등 의료적 치료가 필요하거나 당장 조치가 필요한 수준(중고도+고단계)이 27%로 나타나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 이상은 외로움이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 ▶ 위의 외로움 수준은 미국의 심리학자 다니엘 러셀이 개발한 'UCLA 외로움 지수'를 통해 측정했는데 외로움과 관련한 20문항을 풀고 점수에 따라 외로움의 단계를 저단계·중등도·중고도·고단계로 나누었다.

[그림] 외로움 수준별 비율 (UCLA 외로움 지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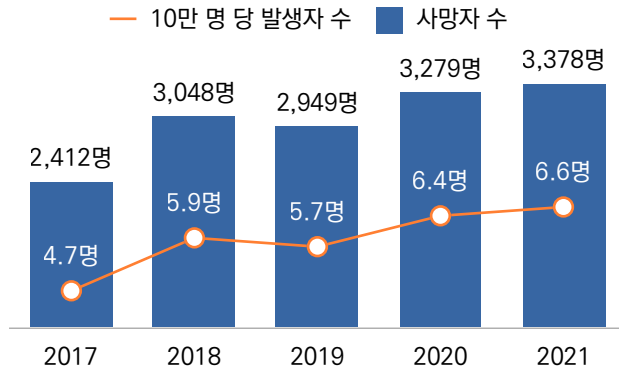


*자료 출처 : 국민일보/피엠아이. '외로움 척도 지수와 종교 상관관계', 2023.02.01. (전국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2,000명, 온라인/모바일 조사, 2023.01.19.~26.)

◎ 2021년 고독사, 하루 평균 9명꼴로 역대 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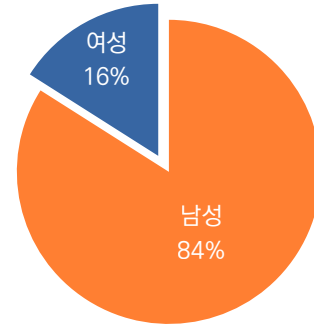
- ▶ 우리 정부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2022년 고독사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고독사 발생 건수는 2021년 기준 3,378명으로 하루 평균 9명꼴, 10만 명 당으로 보면 6.6명으로 나타났다.
- ▶ 성별로는 남성이 84%로 여성 16%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림] 고독사 발생 현황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2022.1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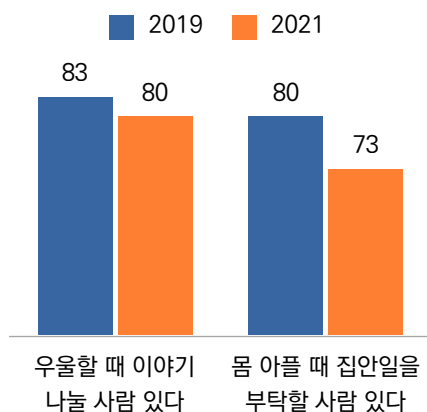
[그림] 성별 고독사 비율 (2021)



◎ 한국인의 사회적 관계망, OECD 중 최하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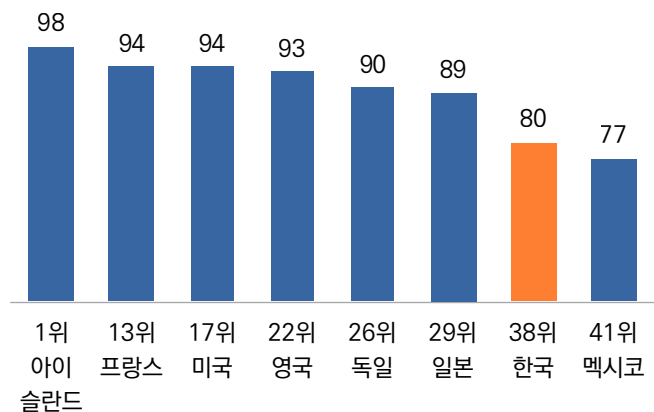
- ▶ '사회적 고립도' 지표이기도 한 '사회적 관계망' 측정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여부'를 통해 판단하는데 통계청의 2021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울할 때 이야기 나눌 사람이 있다'와 '몸이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있다'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80%, 73%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동일 조사 대비 각각 3%p, 7%p 하락한 수치이다.
- ▶ OECD 41개국과 비교하면 1위인 아이슬란드 98%와 상당한 격차를 보이며, 한국은 최하위권인 38위에 랭크돼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사회적 관계망 : 도움 줄 수 있는 사람 (%)



*자료 출처 : 통계청, '2021년 사회조사 결과'

[그림] OECD 주요국의 사회관계망 지표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응답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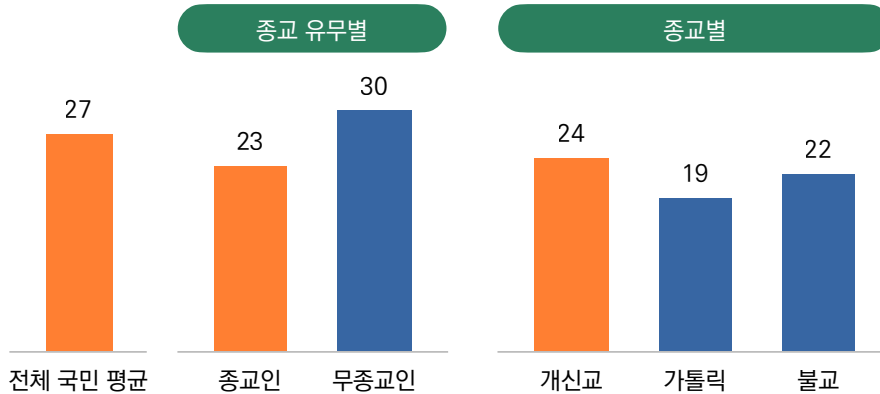
*자료 출처 : OECD, 'Better Life Index 2022'

02

[종교인과 무종교인의 외로움 비교] 종교인이 무종교인보다 덜 외롭다!

- ▶ 종교인의 경우는 무종교인보다 외로움(중고도+고단계: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단계)을 덜 느꼈고, 종교별로는 가톨릭 신자가 불교 신자, 개신교인보다 외로움(중고도+고단계)을 겪는 비율이 다소 낮았다.

[그림] 외로움 중고도 단계 비율 (UCLA 외로움 지수, '중고도+고단계' 외로움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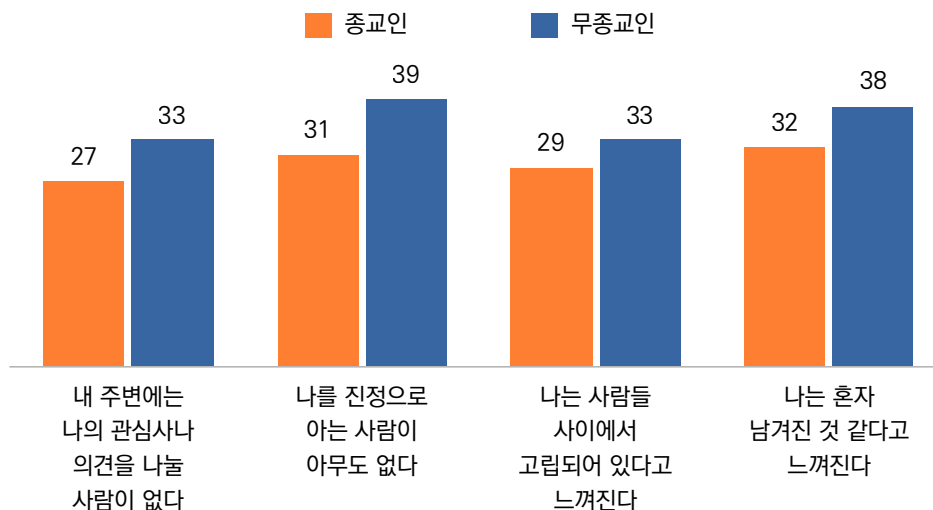


*자료 출처: 국민일보/피एम아이. '외로움 척도 지수와 종교 상관관계', 2023.02.01. (전국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2,000명, 온라인/모바일 조사, 2023.01.19.~26.)

◎ 종교인, 무종교인보다 '소속감 없음/고립감' 덜 느껴!

- ▶ 외로움 척도 중 본인의 고립감 정도와 관련한 결과를 살펴보면 '내 주변에는 나의 관심사나 의견을 나눌 사람이 없다', '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는 혼자 남겨진 것 같다고 느껴진다' 등의 질문에 서 종교인의 동의율이 무종교인 대비 낮아 상대적으로 '고립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종교 유무별 외로움 인식 ('항상+가끔'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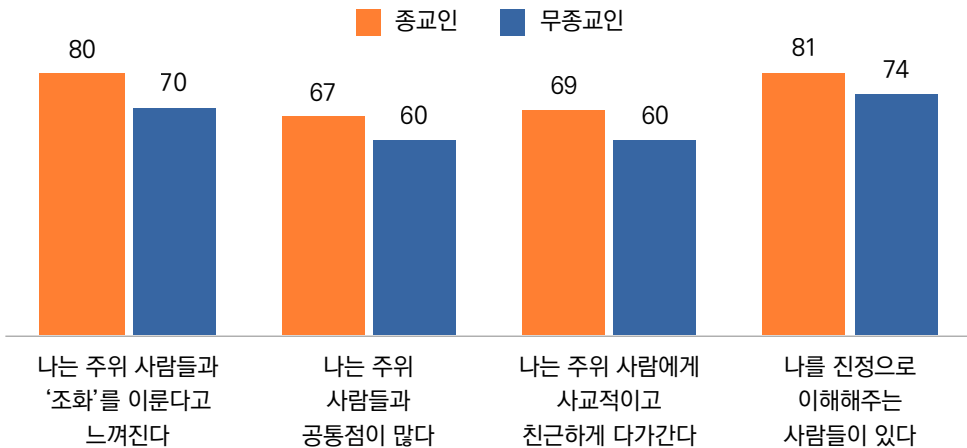
*자료 출처: 국민일보/피엠아이. '외로움 척도 지수와 종교 상관관계', 2023.02.01. (전국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2,000명, 온라인/모바일 조사, 2023.01.19.~26.)

**4점 척도임.

◎ 종교인이 무종교인보다는 ‘주위 사람과의 관계’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

- 외로움 척도 중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해 물은 질문들의 결과를 뽑아 종교인과 무종교인을 비교해 보았다.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종교인이 무종교인 대비 ‘주위 사람들과 조화를 이룬다고 느끼거나’,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다’ 등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종교 유무별 주위 사람 관계 인식 ('항상+가끔' 그렇다 비율**, %)



*자료 출처 : 국민일보/피엠아이. '외로움 척도 지수와 종교 상관관계', 2023.02.01. (전국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2,000명, 온라인/모바일 조사, 2023.01.19.~26.)
 **4점 척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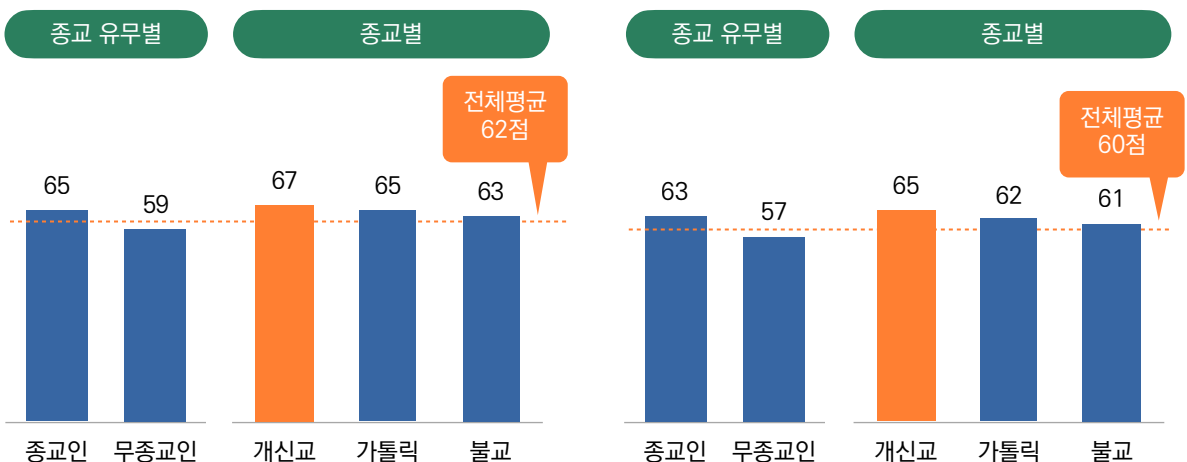
03

[종교와 외로움] 개신교인의 행복과 만족도, 타종교인보다 높아!

- 전반적인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종교인이 전체 평균(행복도 62점, 삶의 만족도 60점)을 웃돌며 100점 만점에 각각 65점, 63점으로 무종교인 대비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가 각각 6점씩 높았다.
- 한편 종교인 중에서는 개신교인이 타 종교인들보다 행복도와 만족도가 2~4점가량 높게 응답한 특징을 보였다.

[그림] 전반적 행복도** (점)

[그림] 전반적 삶의 만족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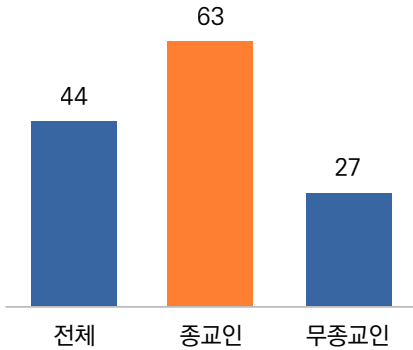


*자료 출처 : 국민일보/피엠아이. '외로움 척도 지수와 종교 상관관계', 2023.02.01. (전국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2,000명, 온라인/모바일 조사, 2023.01.19.~26.)
 **10점 척도 결과를 100점으로 환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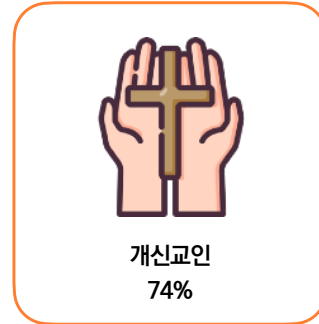
◎ 개신교인 4명 중 3명, '종교가 외로움 극복에 도움 준다'!

- ▶ 종교활동은 외로움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종교인이 단연 무종교인(27%)보다 '도움을 준다'고 응답한 비율이 63%로 훨씬 높았고, 개신교인은 그보다 높은 4명 중 3명꼴로 '종교가 외로움 극복에 도움을 준다'고 응답했다.

[그림] '종교가 외로움 극복에 도움 준다' 동의율
(‘매우+어느 정도’ 도움 준다 비율**, %)



[그림] '종교가 외로움 극복에 도움 준다' 동의율
(‘매우+어느 정도’ 도움 준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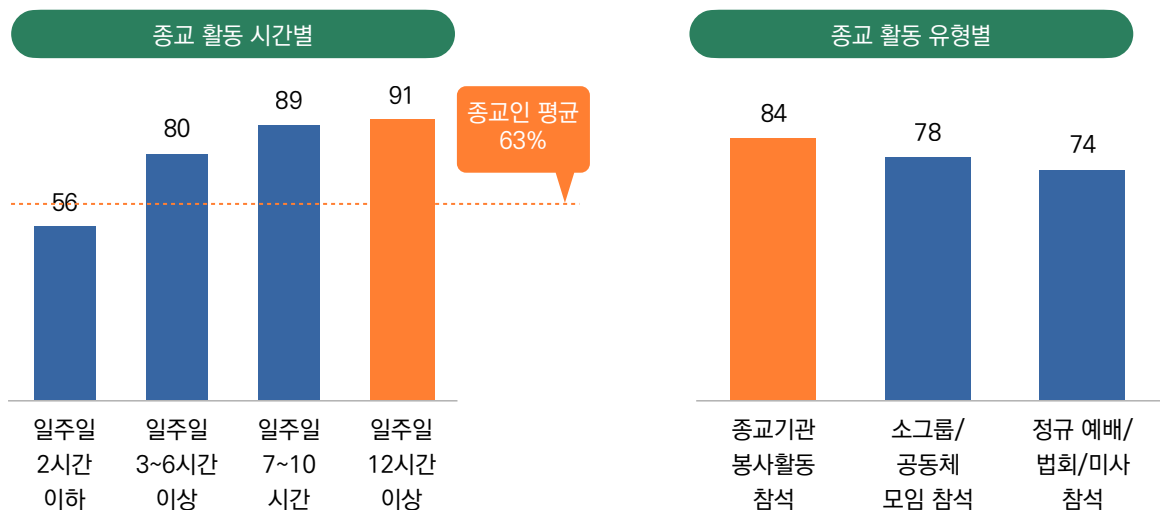
*자료 출처 : 국민일보/피엠아이. '외로움 척도 지수와 종교 상관관계', 2023.02.01. (전국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2,000명, 온라인/모바일 조사, 2023.01.19.~26.)

**5점 척도임

◎ 종교 활동 시간 많을수록 외로움 극복 비율 높아

- ▶ 사람들의 종교 활동이 외로움 극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종교 활동 시간이 길수록 '종교가 외로움 극복에 도움 준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고, '예배 참석'보다는 '봉사활동이나 소그룹/공동체 모임'에 참석할 때 '종교가 외로움 극복에 도움 준다'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림] '종교가 외로움 극복에 도움 준다' 동의율 (종교인, '매우+어느 정도' 도움 준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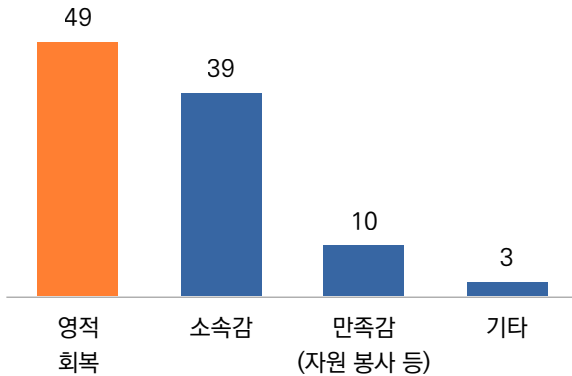
*자료 출처 : 국민일보/피엠아이. '외로움 척도 지수와 종교 상관관계', 2023.02.01. (전국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2,000명, 온라인/모바일 조사, 2023.01.19.~26.)

**5점 척도임

◎ 외로움 극복에 대한 종교의 역할, 2명 중 1명 ‘영적 회복’ 꼽아!

- 외로움 극복에 종교가 도움을 준다고 응답한 종교인들에게 ‘외로움 극복에 있어 종교가 하는 역할’을 물었더니 ‘영적 회복’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서 ‘소속감’ 39%, ‘만족감’ 10% 등의 순이었다. 종교의 영적(영성) 회복 기능이 사람들의 외로움 극복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외로움 극복에 있어 종교의 역할
(종교가 외로움 극복에 도움 준다고 응답한 종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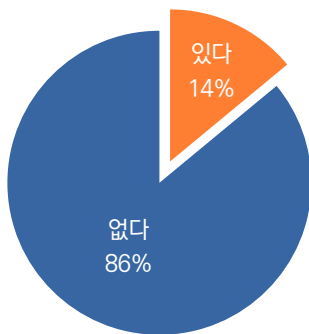


*자료 출처 : 국민일보/피एम아이. '외로움 척도 지수와 종교 상관관계', 2023.02.01. (전국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2,000명, 온라인/모바일 조사, 2023.01.19.~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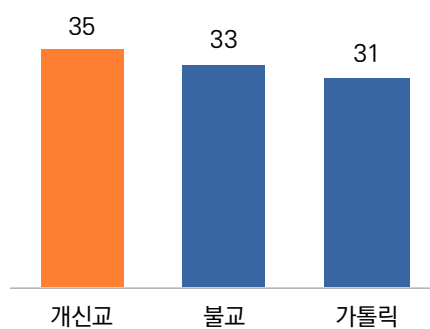
◎ 무종교인, 외로움 느끼고 종교에 관심 가진 경험, 14%!

- 종교를 믿지 않는 무종교인 가운데 외로움을 느끼고 종교에 관심을 가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4%로 7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 이들(외로움 느끼고 종교에 관심 가진 무종교인)이 관심 있는 종교로는 개신교, 불교, 가톨릭 세 종교가 비슷하게 꼽혔는데 개신교가 약간 높았다.

[그림] 외로움 느끼고 종교에 관심 가진 경험
(무종교인)



[그림] 외로움 느끼고 관심 가진 종교
(외로움 느낀 후 종교 관심 경험자, %)



*자료 출처 : 국민일보/피엠아이. '외로움 척도 지수와 종교 상관관계', 2023.02.01. (전국 만 19세 이상 일반국민 2,000명, 온라인/모바일 조사, 2023.01.19.~26.)

현대인은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에서 외로움은 심각해지고 있다. 파편화되고 개인화된 생활이 일반화되면서 타인의 삶에 관심을 두지 않고 개입하지 않는 고립주의로 인해 외로움이 심화한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경쟁의식, 사회적 소외감, 다른 사람과의 비교 의식에서 오는 자신감 결여 등이 외로움을 가중한다. 게다가 코로나19 이후에 늘어난 비대면 활동은 외로움을 더 촉진할 수 있는 요소가 되었다.¹⁾

외로움의 심각성은 외로움이 정신적 질병을 가져올 뿐 아니라 육체적 질병까지 낳는다는 데 있다. 영국은 2018년 내각에 '외로움부'를 설치하고 장관을 임명하여 외로움에 대한 대책을 국가적으로 강구하는데 나섰다. 일본은 영국을 벤치마킹하여 2021년 2월 총리 산하 내각관방에 '고립·고독 대책 담당실'을 신설하였다.

「넘버즈」 195호 분석에 따르면 '사회관계망 지표'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우리나라의 경우 OECD 41개 국가 가운데 38위에 그칠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사회관계망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외로움, 즉 중·고도 이상의 외로움을 겪는 비율은 4명 가운데 1명 이상인 27%로 우리나라의 외로움이 얼마나 심각한 단계에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흥미로운 것은 종교 유무에 따라 외로움을 느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외로움'의 중·고도(상담 등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단계) 이상 비율이 종교인은 23%, 무종교인은 30%로 종교인의 외로움 비율이 무종교인보다 낮았다. 종교 유무별 외로움 인식을 살펴보면 '내 주변에는 나의 관심사나 의견을 나눌 사람이 없다'가 종교인 27%, 무종교인 33%, '나는 혼자 남겨진 것 같다고 느껴진다'가 종교인 32%, 무종교인 38%로 종교인이 구체적 상황에서 '고립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데에는 관계성과 소속감이 중요하다. 종교 기관에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다양한 종교 활동을 하고, 서로의 경조사에 관심을 두고 돕는 관계 속에서 종교인들은 끈끈한 유대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되면서 외로움을 덜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넘버즈」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외로움을 극복하는데 사람들과의 관계성보다는 영적인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외로움 극복에 대한 종교의 역할로 '소속감'을 응답한 비율은 39%였으나 '영적 회복'을 응답한 비율이 49%였다. 특히 개신교인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인식할 때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가변적일 수 있으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은 근원적이고 본질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종교인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가장 핵심적 요소는 영적 회복이 되어야 한다.

이상의 결과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교회가 사람들의 외로움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과의 동행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인식은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한다. 둘째는 성도들 간에 신앙적 유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는 다른 말로 지체 의식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는 교회의 공동체성을 높이는 것이다. 소그룹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도 공동체가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넷째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로움을 스스로 극복하게 돕는 일이다. 다섯째는 사람들의 관계망을 촘촘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관계망을 통해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느낄 때 외로움을 덜 느끼게 된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코로나 이후 약해진 영성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심각한 외로움에 시달리는 현대인에게 교회가 마음을 붙이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대안이 되기를 기대한다.

1) 외로움에 대해서는 「넘버즈」 35호와 152호 볼 것.

1.[세대별 동성애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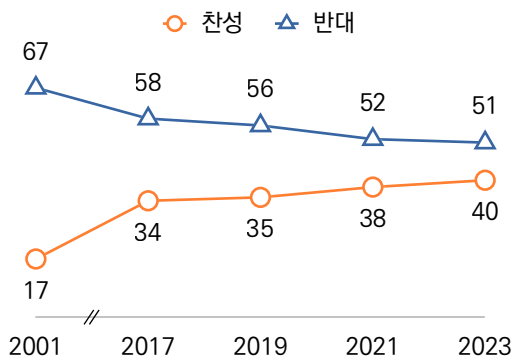
2.[한·일 국민 '100세 시대'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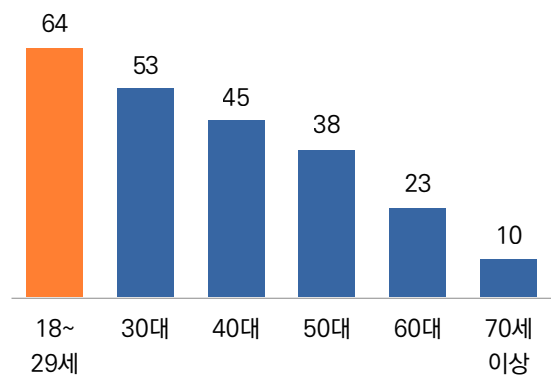
동성결혼 법제화 찬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

- ▶ 최근 한국갤럽이 동성결혼 법제화 등 동성애 관련 추적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동성결혼 법제화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찬성' 40%, '반대'가 51%로 20여 년 전 조사 대비 '찬성'이 2배 이상 증가했고, 법제화 찬성과 반대 의견의 격차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2001년 찬반 격차 50%p→ 2023년 9%p) 동성결혼에 대한 국민 인식이 아직은 반대의견이 높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의 개방화와 맞물려 조금씩 찬성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 연령별로 보면 '동성결혼 법제화 찬성'은 저연령층일수록 높는데, 20대(64%)와 70대 이상(10%) 간 인식 차이가 6배 이상이나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 ▶ 2030 MZ세대의 경우 절반 이상이 동성결혼에 대해 수용하자는 인식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교회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림] 동성결혼 법제화 찬반 (%)



[그림] 연령별 동성결혼 법제화 찬성 의견 (202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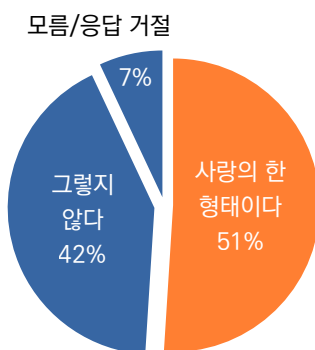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 544호, 2023. 05.26.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 전화조사, 2023. 05. 23~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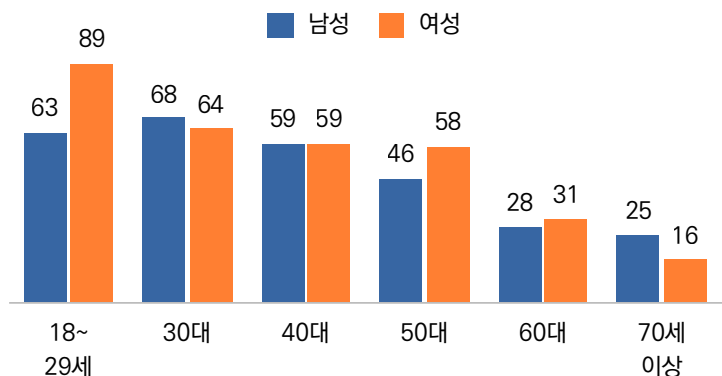
◎ 20대 여성 10명 중 9명, '동성애는 사랑의 한 형태이다'에 동의!

- ▶ '동성애도 사랑의 한 형태인가'에 대한 질문에 한국인의 절반가량이 동의했고, '그렇지 않다'는 42%로 동성애를 사랑의 한 형태로 인식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다'는 인식보다 높았다.
- ▶ 성/연령별로 살펴보면 '동성애도 사랑의 한 형태'로 보는 시각이 20대 여성에서 10명 중 9명으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저연령층일수록 '사랑의 한 형태'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림] 동성애 인식 (2023)



[그림] '동성애도 사랑의 한 형태이다' 성별/연령별 동의율 (202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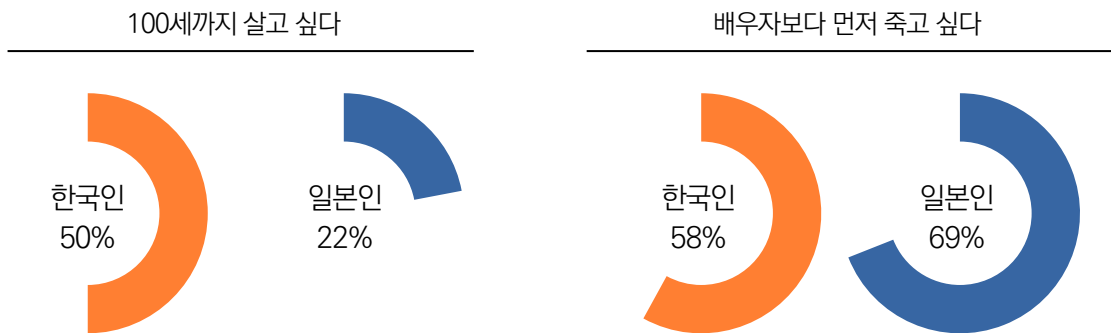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 544호, 2023. 05.26.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 전화조사, 2023. 05. 23~25.)



한국인 2명 중 1명, '백 세까지 살고 싶다'!

- ▶ 한일 양국의 100세 시대 인식은 어떤 차이를 보일까? 조선일보가 한국의 성인 남녀 5,023명을 대상으로 올해 5월에 실시한 '100세 시대 인식' 조사 결과와 일본 호스피스 재단이 2023년 3월 일본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 ▶ 한국인 성인(20~60대) 2명 중 1명은 '100살까지 살고 싶다'고 응답해 동일 질문 응답 비율이 22%에 불과한 일본(20~70대)과는 2배 이상 격차를 보여 일본인보다 한국인에게서 장수하고자 하는 욕구가 훨씬 강하게 나타났다.

[그림] 한·일 100세 시대에 대한 인식** (동익율)



*자료 출처 : 조선일보, "100세까지 살고 싶다" 한국인은 50%, 일본인은 22%, 2023.06.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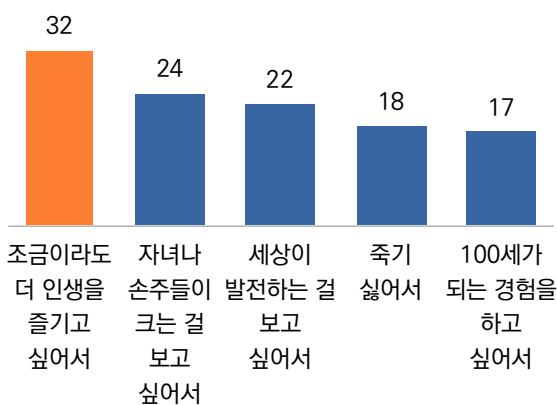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3/06/02/17IAOCA44RCM5KTNDYHGQ7Q3Y/)

**일본과 한국의 조사 대상자 및 대상자 수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유의 (한국 20~60대 남녀 5,023명/ 일본 20~70대 남녀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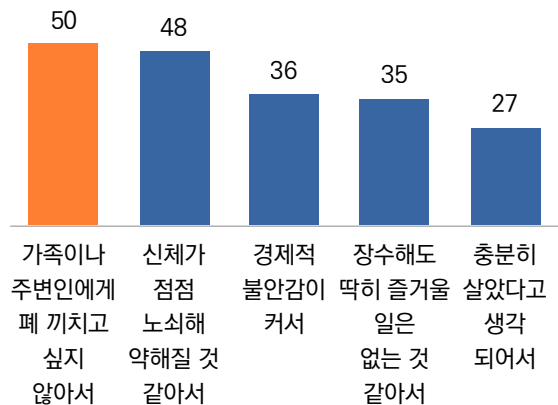
◎ 한국인의 100세까지 살고 싶은 이유, '조금이라도 더 인생을 즐기고 싶어서'!

- ▶ 한국인의 '100세까지 살고 싶은 이유'로는 '조금이라도 더 인생을 즐기고 싶어서'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자녀나 손주들이 크는 걸 보고 싶어서', '세상이 발전하는 걸 보고 싶어서' 등의 순이었다.
- ▶ '100세까지 살기 싫다'는 응답자들은 '가족이나 주변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와 '신체가 점점 노쇠해 약해질 것 같아서' 등 신체적인 노화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그림] 100세까지 살고 싶은 이유 (한국인, '100세까지 살고 싶다' 응답자, 복수응답, %)



[그림] 100세까지 살고 싶지 않은 이유 (한국인, '100세까지 살기 싫다' 응답자, 복수응답, %)



*자료 출처 : 조선일보, "100세까지 살고 싶다" 한국인은 50%, 일본인은 22%, 2023.06.02.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3/06/02/17IAOCA44RCM5KTNDYHGQ7Q3Y/)

◎ 정치

[전국지표조사\(주요 4개 조사회사\) 리포트 제98호 \(2023년 6월 2주\)](#)

- 국정운영 평가, 국정운영 신뢰도, 주요 정책 과제 평가, 22대 총선에 대한 인식 등

◎ 사회 일반

[OECD 최악의 출산율 한국, 혼인 출산율은 독보적 1위...이유는?](#)

JTBC뉴스_2023.06.06.

['베이비시터' 없이도 출산율 높은 스웨덴...비결은 '성평등'](#)

연합뉴스_2023.06.13.

[20세 청년 부모별인데..."49세까지 청년" 결혼축하금·월세 준다](#)

중앙일보_2023.06.08.

[2023 인공지능 인식조사](#)

한국리서치(여론속의여론)_2023.06.06.

[서울시민 작년 문화예술 관람에 평균 10만원 지출... '큰 손'은 자녀 있는 30~40대 기혼여성](#)

조선일보_2023.06.01.

[나이 먹은 독서 시장... '마흔'이 '서른' 제쳤다](#)

조선일보_2023.06.08.

[전세사기 당한 사람들 총 2996명, 금액은 4599억원...피해자 절반이 2030](#)

조선일보_2023.06.08.

["70살까지 애 뒷바라지 못해요"...30대男마저 딥크 택한다](#)

중앙일보_2023.05.08.

[여협·서울시 2023 양성평등 인식조사...시민 10명 중 8명 '양성평등 불공정' 느껴](#)

매일경제_2023.05.09.

['중국이 좋다'는 한국인, 10명 중 한 명꼴... '미국이 좋다' 8명](#)

디지털타임스_2023.06.13.

[전 세계인 25% "아내 때려도 돼"... 아직도 먼 성평등 인식](#)

국민일보_2023.06.13.

◎ 경제 / 기업

['찾아진 이직'... 재작년 400만명 직장 옮기고, 근속 기간도 짧아졌다](#)

조선일보_2023.06.08.

[일자리 못 찾아서 '알바', 10년새 급속 증가](#)

국민일보_2023.06.12.

[직장인들 AI '열공 모드'...36% "호기심 넘어 업무에 활용"](#)

한겨레_2023.06.13.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건강

[출근하기 싫은 월요일, 치명적 심장마비 발생 많다](#)

서울신문_2023.06.06.

[100세시대 가장 무서운 '치매'... 골고루 먹어야 예방한다](#)

매일경제_2023.06.06.

[한국인 2000만명 위험하다...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현대인 질병'](#)

매일경제_2023.06.12.

◎ 기독교 / 종교

[팬데믹에도 쑥쑥 큰 교회 보니... 소그룹 모임 자주 가졌더라](#)

더미션(국민일보)_2023.06.08.

[미국 개신교인 86% “복음 위해 자원봉사할 의향 있어”](#)

기독일보_2023.05.26.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대구칠곡교회, 대덕교회, 대전선창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맑은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빛과소금교회, 브니엘감리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종로),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세광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하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륜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광장로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일동동부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잠실교회, 장유대성교회, 정읍성광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사랑교회(파주), 주안장로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소망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AI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사)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목회, 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 광주지식포럼, CCC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 후원 기업 |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주)마뜨, 메가리서치,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웨슬리퀘스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가나다 순)

| 후원 명단 안내 |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신규 후원 |

이상용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전 원장)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 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철, 민선영, 유영민, 송예슬, 김찬술, 한미경

| MOU 기관 |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안미션,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일연합선교회

미주지역 :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마성대